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 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5년 1월 1일 (수) 제 845 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 양영우 · 편집인 / 정수환

인쇄소 靑丘文化社

2025신년  
메시지

# 나그네된 그리스도인의 소망

<베드로전서 1:1-2>

총회장 양영우 목사 (무코가와교회)



2025년 새 해를 맞이하여 재일대한기독교회(KCCJ)에 속한 모든 교회와 신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야말로 세계 평화의 회복되며,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편지는 바울서신이든, 베드로서신이든 같은 형식의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세속적인 말이나 일반적인 인사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무엇보다 복음적인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축복기도를 인사로 대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주목해 보면 '본토, 갈라디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에 기록된 지명은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밑에 있던 소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과 바울 자신의 서신에 의하면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전도를 하고 교회의 기초를 세운 것은 사도 바울이었는데, 여기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방에 전도를 하고 그 중 한 곳에 교회의 기초를 세웠던 것인지, 그렇지 않은가? 혹은 베드로가 실제로 이들 지방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본문 1장 12절 후반부를 보면 사도 베드로는 11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그 구원에 대해 말한 후에 12절에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이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고난과 엄청난 시련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나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들이 그 가운데서 겪은 시련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사회에는 우상숭배적인 관습, 부도덕한 관습에 같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회에서 쫓겨나가거나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많이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반기독교적이고 광신적인 적대감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 사회와 유대인들로부터 이유 없는 폭력과 증오, 중상모략, 의심을 견뎌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부와 재산과 직업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1:6-7절, 3:13-15절을 보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손해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실제로 당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잘 알겠지만, 사도 베드로의 말을 빌리자면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

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에 베드로는 권면과 위로를 주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격려하기 위해, 그들의 소망을 불태우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주석은 이 베드로의 편지를 '소망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이 편지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시련과 축복의 결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날 종말 등에 대해 우리에게 지시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우리의 신앙의 피를 끊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 편지가 '소망의 편지'인 것처럼 21세기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소망의 편지'이며,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비추는 미래의 빛으로 현실의 어둠을 비추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 22:31-32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널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맡게 하라"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한 때 비참하게 주님을 배신하고 사도직에서 물러났던 베드로는 주님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 일어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대로 베드로는 소아시아 각지에서 불같은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주 안에 있는 소망을 주고, 소망에 대한 격려와 힘을 주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주목해 보면 '나그네된'이란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 나라, 혹은 고향을 떠나 잠시 타향에 살면서 잠시 체류하는 자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나라를 떠나 외국에 살고 있는 망명자도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라는 말은 구어체로 '흩어져 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시 자기 나라 팔레스타인을 떠나 이방인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2025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코로나도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나그네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역사 117년을 맞이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은 전국 교회 위에 희망이 주어지고, 회복과 부흥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의 믿음과 기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 2025年度 宣教師・神学生研修会

在日大韓基督教会に加入する宣教師と、伝道師考試を受験するために研修会を実施します。

- ・日 時 : 2025년 2월 23일 (주) 17:00 ~ 2월 28일 (금)
- ・場 所 : 온라인 (ZOOM)

- ・履修課目 : KCCJ神学・宣教理念、憲法・規則、在日同胞史、KCCJ歴史、日本教会史・神学、エキュメニカル神学、KCCJ教会・礼拝・礼典・説教など、総会行政・年金・福祉など日本生活全般
- ・問い合わせ : 志願や詳細は総会事務局に問い合わせください。(金柄鎬080-4377-3927)

# 각 지방회 목사부회장/장로 부회장의 신년의 바램

## 관동지방회부회장 <김신야 목사>



총회를 위해 : 기류민 · 계일의 교회로 태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 ‘소수자이기 때문’ 이 아니라 ‘소수자와 함께 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 이 땅의 평화의 추구하고 복음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들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총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지방회를 위해 :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보다 지방회 안에 있는 힘없는 자, 목소리 없는 자, 아픔과 외로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가운데’ 에 두게 하소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뭍고 씻기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서로 발을 씻어주며 주님의 화해를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부서의 활동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운데, 분열이 아닌 일치를 드러낼 수 있는 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개교회를 위해 : 기류민 · 계일의 무리로서 시작된 교회임을 잊지 않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찾아오는 삶의 나그네들의 거처가 될 수 있게 하소서. 특히 다양한 뿌리를 가진 이웃의 중학생들의 고뇌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조금이나마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처가 되게 하옵소서. 개개인의 영성이 고양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으로서 : 수많은 부족함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 관동지방회부회장 <야나기마치 이사오 장로>



2025년도는 직장인 대학에서 정년(65세)을 맞이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1990년에 한국유학에서 돌아와 첫 번째 대학에 교편을 잡고 통산 35년간의 경력을 마치게 됩니다. 45세 때인 2006년에 세례를 받고 크리스트교인이 됐고, 그 후 20년 동안은 교회와 대학이 제 삶의 근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인

도받은 대로 살아왔습니다만, 마지막 1년,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에서 힘껏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힘쓰는 일은 젊은 후배들에게 맡기고, 육체의 쇠퇴를 커버할 수 있는 일 중심으로 무리하지 않게 극복하려 합니다.

저는 2017년 56세 때 장로가 되어 2025년도에는 장로 9년째를 맞이합니다. 소속된 요코하마교회, 관동지방회, 그리고 총회에서의 봉사 등, 다양한 봉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재일대한기독교회와 관련된 많은 분들과의 만남을 통한 배움이며, 대학이라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한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각자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개교회, 지방회, 또 전국총회가 존재하고, 교회 내에서도 목사 · 장로 외의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주어진 원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기쁨은 없습니다.

현재 저는 여러가지 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줄 믿으며, 관계자분들과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를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중부지방회부회장 <이진용 목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재일대한기독교회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에 전쟁과 분열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각 나라와 지도자들이 욕심을 버리고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적대시 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 할 지라도 조금씩 이해하면서 관계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각각 다른 교리와 신앙의 입장 또한 교단에 속해 있지만 일본에 복음의 소식을 펼치는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 아래에서 함께 연합하여 하모니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노력이 본이 되어 주님의 은혜로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사회 그리고 각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도요타메구미전도소는 중부지방회의 각 교회들과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주님 안에서 연합한 우리인 것을 기억하며 각각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때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할 것이라고 믿으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실천이 그리고 우리의 연합과 조화가 일본사회와 한국사회에 더 나아가 모든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중부지방회부회장 <이대중 장로>



전능한 주님께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하루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사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파병된 병사들도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비판에 빠져, 불행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있는 건 아닌가 가슴이 아픕니다.

총회가 하나가 되어 이런 어리석은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마음 모아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용서와 치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방회와 각 교회가, 재일대한기독교회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에 살면서 박해당하던 백성들이 창조주에게 구원을 바라고 예수의 사랑에 희망을 발견해 신앙공동체를 만들고 재일대한기독교회를 형성하게 된 역사는 후세에 남겨야 할 것입니다.

또 재일대한기독교회가 하나의 교파가 아니라 연합교회인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교파는 달라도 서로 용서하고, 주 예수의 사랑의 선교에 힘쓰도록 주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도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도 삶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다가가는 각 교회가 되고, 각 교회의 목소리를 지방회가 담아내도록,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주 앞에서 아름답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관서지방회부회장 <김중권 목사>



- 1. 총회
  - (1) 목회자 무료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확대(한국,미국교회와 협력)
  - (2) 홈페이지 제작, 영상설교제작등 지원(미자립교회·희망교회우선)
  - (3) 선교협력교단과의 효과적 협력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 개발
  - (4) 목회자 안식년제도 논의필요(목회자의 번아웃 예방,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 2. 관서지방회
  - (1) 정기적 연합기도회(장소: 교회순회, 온라인)
  - (2) 목회자 재교육프로그램(자기개발, 총회와 협력)
  - (3) 강단교환(년 4회 정도)을 통한 관서지방교회간의 교류
- 3. 히라노교회
  - (1) 전도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 (2) 큐티하는 성도가 늘어나도록
  - (3) 베트남청년들의 일본정착과 믿음생활의 성공사례들이 많아지도록
  - (4)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지역봉사, 구제사업 등)
- 4. 김중권목사 가정
  - (1) 부부의 영성이 더 깊어지도록
  - (2) 기타를 잘 배워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 (3) 웃을 일이 많은 2025년이 되도록

### 관서지방회부회장 <모리 카츠유키 장로>



2025년을 맞이하여 평화로 나아가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오사카 교회가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24년간 오사카교회에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해오신 정연원목사님께서 지난해 11월 10일 명예목사 추대를 받았다. 은퇴 직전까지 여느 때와 같이 설교를 하시고 당회를 이끌어 오셨기에 신도들 중에는 은퇴하신 후의 상황이 그다지 상상이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후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부담을 지게 되고, 교회에 아무도 거주하고 없음으로 인한 위험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출되었다. 12명의 시무 장로들만의 그룹라인이 있는데 거의 매일같이 누군가가 문제나 결정할 일들을 제시하는 상태이다.

후임 담임목사를 정하기 위해 1년 전에 장로 중에서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차례 회의를 해왔다. 인선 위원회가 결정한 후보자를 12명의 장로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후보 목사님은 줌(ZOOM)을 통해 장로들에게 설교를 해 주셨고, 질의응답시간을 거둬들인 후에 당회내의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명예장로님을 향한 설명회, 제직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5일 임시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을 결정했다. 나 자신도 장로가 된지 14년째가 되는데 이번만큼 긴장한 공동의회는 처음이었고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이 되고나서 폐회 찬송을 부를 때는 눈물이 났다.

간사지방회에서는 교도교회도 올해 새로운 담임목사를 맞이하게 된다. 지방회의 큰 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하게 된다. 교회내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온 신도들이 새로운 목사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 코로나 사태로 감소한 교인수가 회복되기를 2025년 신년을 맞이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00편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 서부지방회부회장 <한세일 목사>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총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 신도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가지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고 함께 하는 교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계의 많은 교단과 교회들로부터 사랑과 도움을 받은 것 같이, 이제는 우리 총회가 베풀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총회가 되게 하소서.

지방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항상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더 알아가는 지방회가 되게 하소서. 각 교회의 사정을 알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가게 하소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지방회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하시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는 주님의 충성된 목회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도 목회자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지방회 각 교회의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몸 된 고베교회가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시간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재물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서로가 채워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일꾼인 우리 공동체로 인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이 지역에 널리 퍼지게 하소서. 고령의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함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에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 서부지방회부회장 <양창희 장로>



지난 2024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져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쏟아냈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2025년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서부지방회에서는 2024년도에 무목(無牧)교회 등 재건 검토 위킹그룹을 발족했는데, 하루 속히 무목교회에 목회자가 세워져 복음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미자립교회에서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 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총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총회 재정의 건전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각 지방회를 지도하고 견인하는 총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단의 모교회인 동경교회가 하루 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흥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 <정정과 사과>

복음신문 2024년12월호 한국어판 1면 번호의 제834호는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정정하며 사과드립니다. 바른 번호는 「제844호」입니다.

### 서남지방회부회장 <윤선박 목사>



서남지방회 열 교회와 한 곳 전도소의 모든 목사님들의 목회 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그 은혜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선배들의 신앙과 삶에서 신학을 배우고, 각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슬픔과 기쁨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형제자매

들께 간증할 사역이 부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회에 대한 과제를 생각해 보면, 우선 총회 기도 과제에도 있듯이 구마모토교회 건축헌금에 대해 기도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쓰시마은혜교회의 건축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임직원회에서 각 교회나 각 교역자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제 예산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기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로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교역자들은 용기를 내서, 서로 연락하고, 의논하면서 과제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남지방회 공동체 변영의 희망을 맞이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남지방회는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하는 형제자매인 일본기독교단 큐슈교구·서중국교구(아마구치 서분구)와 일본 그리스도교회 큐슈총회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큐슈교구와는 UMC에 의해 맡겨진 '조인트 프로젝트'의 모습을 모색하면서,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제적과 현재 '헤이트 스피치를 생각하는 공동집회'에 의한 교제 시간은 재산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연대와 평화 실현을 향해 더 나아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큰래 지방회는 동아시아 형제자매들과 신앙관계를 깊이 가질 가능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쿠라교회에서는 화교 신자들, 하카타교회는 베트남 신자들, 서남KCC에서는 인도네시아 복음선교단이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번 크리스마스 찬양 예배에서는 화교 신자들의 찬양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며, 서로 도울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멀리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25년에는 변영의 희망과 평화 실현의 희망을 위해 함께 기도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시나가와교회

## 경혜중 명예목사 소천 재일대한기독교교회제1호 여성목사로 봉사



2024년 12월 5일, 시나가와교회 경혜중 명예목사가 한국에서 소천하여 장장식 목사의 집례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향년 93세였다.

故·경혜중 목사는 1931년 한국 청주에서 출생하여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1971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국여성전도회연합회 파송으로 일본에 와서 京都교회 전도사(1977년까지), 1978년부터 시나가와교회에서 목회하면서 2001년 은퇴할 때까지 시나가와교회를 비롯해 관동지방회, 총회를 위해 섬겼다.

故人은 1983년 재일대한기독교교회 제1호 여성목사로 안수를 받았으며, 1997년 재일대한기독교교회 제44회기 총회장을 역임했다. 여성으로서 마이너리티교회의 총회장이 된 것이 여성 인권을 높인 것이 인정되어 1999년에 미국의 Bloomfield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를 수여하였다.

### 후나바시교회

## 김도자 은퇴장로 소천 관동지방여성회와 민단에서도 활약



2024년 12월 6일, 후나바시교회 김도자 은퇴장로가 소천하여 장경태목사의 집례로 장례식을 거행했다. 향년 84세였다.

故·김도자 명예장로는 재일동포 2세로서 1940년 일본 오가키(大垣)에서 태어나 1946년 재일대한기독교교회 오가키교회의 설립과 함께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여, 1956년 박명준(朴命俊)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1958년 후나바시교회로 이적한 후에는 집사, 2003년에 장로로 장립받아 2010년 은퇴할 때까지 평생 후나바시교회를 섬겨왔다. 또한 한국민단 치마현(千葉縣) 본부 부녀회장 및 부단장도 역임했다.

### 특별기호

## 히라노 (平野) 교회 베트남인 청년회 소개

청년회장 레 호안 바오

2016년, 한 명의 베트남인이 히라노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왔습니다만, 베트남에 있을 때 한국인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한국인들이 좋았기 때문에 오사카에 있는 한국인 교회를 찾다가 히라노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중심은 선교의 마음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온 베트남인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및 유학 등으로 일본에 온 베트남인 크리스찬들에게도 히라노교회를 소개하여 적은 숫자였지만 청년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는 베트남에서 일본에 오는 유학생, 실업생이 급증했습니다. 그 중에는 크리스찬도 있어서 오사카 시내와 주변의 도시로부터 히라노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도 많이 나왔습니다. 점차적으로 베트남인이 늘어났고, 청년회의 활동도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회에는 몇 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우선 영상팀은 사진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편집하여 포스터 등을 제작, 페이스북 및 유튜브 등에 실어 전도활동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히라노교회도 소개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 대의 기타로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피아노, 기타, 드럼, 찬양리더가 가능한 여러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와서 찬양팀에 합류하여 너무나도 훌륭한

한 가스펠밴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찬양봉사로 하고,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2023년, 2024년은 일본 전역의 베트남인 그리스도인들이 미에현(三重縣) 카리스 캠프에 모여 함께 여름캠프를 가졌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주 평일에는 일과를 마친후 피로가 쌓인 중에도 「큐티나눔 모임」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함께 묵상,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월, 화, 목, 금요일에는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무기를 가지지 않은 병사와 같다고 생각하며, 매일 매일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함께 힘내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때까지 동행하므로 승리를 얻는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